

'손주 돌보기' 거부하는 할머니들 늘어

비로소 얻은 '나만의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

여 92.5.1

29세의 임신중인 직장여성 박씨(31)는 요즘 출산 이후 아이 양육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자신과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등 세여성중 누군가가 육아를 위한 '희생타자'가 돼야 하는데 친정·시집 양쪽이 모두 육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묘안이 없는 한 박씨가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박씨는 현재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직장생활을 하고픈 욕심,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10년 후에도 내집 마련은 요원할 것 같은 현실을 생각할 때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고민이 엄청나다.

송여진(28)씨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육아를 거부해

현재 매달 30여만원의 돈을 주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2살짜리 자녀를 맡기고 출근한다.

교사인 송씨는 65만원 가량의 월급 중 절반 가까이를 택아비로 쓰지만 주변에 마땅한 택아소도 없고 놀이방에서는 3세 이하 어린아이를 받지 않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상당수의 직장근무 엄마들이

송씨처럼 이웃에서 '아이 보아주는 사람'을 찾아보지만 믿고 맡길 만한 마땅한 이를 못 찾아 애태우기도 한다. 간혹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여 하루종일 재운다는 얘기도 들려 왔는데 택아에 두려움을 갖게 한다.

앞서 박씨의 경우 주변 친구들이 육아비 외에 수고비조로 월급의 상당부분을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에게 드리며 아이를 맡긴다고 들었기에 이를 계산에 넣고 양쪽 어머니에게 부탁드렸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옛 어른답지 않게 현대적 사고방식을 지닌 박씨의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의 직업을 인정하고 장남인 아들을 분가시키는 데 협조를 아끼지 않아 아이문제도 당연히 시어머니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으나 그 생각은 착각에 지나지 않았다고 박씨는 털어놓는다.

"너희들이 육아비로 백만원을 준다고 해도 아이는 맡지 않겠다. 너희들이 편하자고 분가할 때는 언제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느냐. 나도 이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

"우리가 언제 집안일에서 벗어난 적이 있느냐. 또다시 고생을 사서 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 늙은이 가운데 가장 동정을 받는 이는 '집에서 애보는 늙은이'다. 너는 직장생활이라도 하지만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집안일에만 얽매어 왔다..."

시어머니의 강경한 자세는 어떠한 설득으로도 꺾이지 않을 성질이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시간이라고는 자녀들을 결혼시킨 후뿐인데 그것마저 빼앗기고 싶지는 않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박씨로서는 가슴답답할 뿐인 것이다.

박씨의 직장동료 김연주씨(31)는 매월 25만원씩을 드리며 아이를 아예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1주일에 한번씩 아이를 찾아간다.

아이를 맡겨야 할 입장에서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에게 맡기면 '아이키우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여긴다. 시댁에 비해 아이 키우는 방식에 자기 견해를 펴기가 쉽기 때문이다.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라', '아이의 응석을 많이 받아주지 말아라', '아이를 너무 싸매고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게 하는 것이 좋다'는 등의 육아법

을 주문하기 쉽다는 김씨는 역시 여성에게 최후의 후원자는 친정어머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요즘 이런 김씨의 처지는 호강스러운 경우에 속한다. 이미 언니의 아이를 맡은 경험이 있었던 박씨의 친정어머니는 지레 머리부터 흔든다.

"애지중지 키워 보았자 역시 외손주다. 어쩌다 병이라도 생기면 그간의 공은 생각지 않고 죄인마냥 다그치는 딸과 사위의 눈치를 보는 것도 괴롭다"는 것이다.

놀이방에 보낼 연령까지만 맡아달라는 부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어머니들은 박씨의 어머니뿐만 아니다.

기혼여성의 직장생활을 보는 인식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자기시간을 아끼게 되면서 점차 손주 돌보기를 거부하는 추세여서 맞벌이 가정의 여성들은 아이가 크는 몇년 때문에 평생 직장을 포기하기도 한다.

친할머니든 외할머니든 아이를 떠맡기는 행위는 평생희생적 삶을 살아온 할머니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택아소 시설의 확충으로 귀결되어진다. 그러나 당장 자신의 직장생활 지속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박씨와 같이 상황이 급한 기혼 직장여성들에겐 길이 너무 멀어 보인다.

(김문란 기자)

